Presbyterian Medical Center Magazine

ALLOTMENT

[얼라트먼트] 하나님의 기업 예수병원

2021 March

vol.

01



Allotment for
Presbyterian Medical Center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예수병원

†*1898년*, 전주성 밖 언덕의 조그마한 초가지붕 진료소에서 시작된 예수병원.
무려 한 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의술로서 이웃의 마음까지 보듬고 있습니다.
123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외관은 변했지만, 예수님 정신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때론 가깝고도 다정한 이웃처럼, 때론 든든한 친구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술을 펼치는
예수병원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예수병원의 '이웃사랑' 소식지가
'Allotment for PMC(하나님의 기업 예수병원)'
매거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수병원 매거진 'Allotment for PMC' Vol.01
발행일 2021년 3월 **발행처** 예수병원
주소 54987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발행인 김철승(예수병원장) **편집인** 송승현(홍보팀장)
홈페이지 www.jesushospital.com

CONTENTS 2021. 03. vol. 01

예수병원
Presbyterian Medical Center

04 The Doctor
심장진료부터 수술까지 '완성형 병원'을 만들다
_ 심장혈관외과 최종범 · 박성식 과장

06 With PMC
정확한 검진으로 수명연장 돕는다
_ 건강의학센터

08 PMC Members
내·외과·소아과중환자실 ICU

10 Season Trip
봄날, 벚꽃, 그리고 쉼
_ 완주군 소양벚꽃길

14 Photo Essay
한 손과 한 손이 만나서 하나의 손이 탄생합니다.

16 Time Travel
예수병원 설립자 마티 잉골드

20 Healthy Food
향긋한 봄날의 맛, 냉이된장국

22 Medi & Movie
영화「기생충」
"요즘도 결핵 있는 사람이 있어요?"

24 Best Partner
"예수병원은 내 어머니 같은 병원입니다"
_ 우리들항외과 박철영 원장

26 PMC News

30 Warm Heart
#고맙습니다_ 고객이 뽑은 친절직원
#칭찬합시다_ 직원 칭찬릴레이

32 Donation
발전기금 후원약정공지

33 Advertisement
예수병원 건강의학센터

34 Schedule
예수병원 진료일정 안내



표지 Story「예수병원人」

'Patient 1st, Jesus only'
진료중심의 환자제일주의와
선교중심의 가치를 비전삼아
예수병원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김철승 병원장님**

심장진료부터 수술까지 ‘완성형 병원’을 만들다

심장혈관외과 최종범·박성식 과장



왼쪽에서부터 **최종범·박성식** 과장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장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를 꼽는다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단연 심장이다. 심장은 한시도 쉬지 않고 각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한다. 우리 병원은 이러한 심장질환 진료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병원이다. 하지만 수술실이 없어 응급환자의 경우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심장혈관외과를 신설하고 수술실을 개소해 ‘심장질환 완성형 병원’으로 거듭났다. 신설된 심혈관외과에는 우리나라 심장질환 최고 권위자인 최종범 교수와 서울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박성식 교수를 영입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

여느 수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심장수술은 시간이 관건이다. 시간을 지체한다면,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장기가 바로 심장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수술이 필요하다. 우리 병원은 지난해 11월 4일, 심혈관외과 수술실을 개소하고 심장질환자를 원스톱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발돋움할 채비를 마쳤다. 예부터 심장 진료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수술실이 없어 응급환자에 대한 완벽한 치료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심혈관외과 수술실이 개소함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졌다. 심장질환자가 치료를 완전히 끝내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된 것이다. 우리 병원은 사실 외과가 강성인 병원으로 심장혈관외과에 신설에 대한 고민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 비로소 심장혈관외과를 신설하고 수술실을 개소했다. 오랜 시간 염원해왔기에 허투루 만들 수 없었다.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 심장혈관외과 수술실에는 심장수술 주요장비인 인공심폐기를 비롯해 첨단초음파 장비와 마취장비 등 최신 장비가 갖춰졌다. 인공심폐기 기사와 심장 수술 후 관리를 도맡아 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가 힘을 더했다. 그렇게 2차병원이지만 대학병원 못지않은 시스템을 갖췄다. 전북을 넘어 전국으로 나아갈,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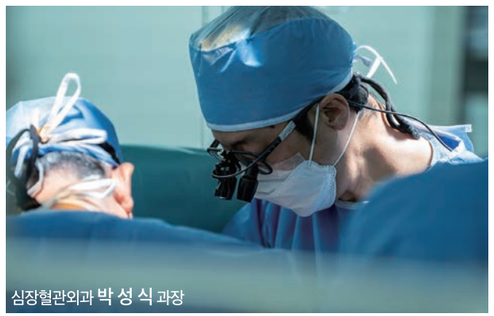
심장 수술 어벤져스가 탄생하다

그리고 여기에 화룡정점. 우리나라 심장질환 최고 권위자인 최종범 교수와 서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박성식 교수가 심장혈관외과에 합류하며 ‘심장수술 어벤져스’팀이 완성됐다. 심장 수술은 혼자 집도할 수 없는 특성상 팀으로 움직인다. 그렇기에 심장 수술은 마치 한몸처럼 움직이는 호흡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35년 동안 5000회 이상의 심장혈관수술을 집도한 최종범 교수와 서울의 병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박성식 교수는 완벽한 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종범 교수는 지난 1994년 국내 최초로 흉부외과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 학술지에 임상연구 논문 게재한 데 이어 매년 SCI급 논문을 발표하고 있기도 하다. 만성질환인 심장질환의 경우 거주지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한 수술과 꾸준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다투는 대표적인 심장질환인 대동맥박리증의 경우, 이송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우리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졌다. 심장수술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며 경제적·시간적 제약 없이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심장수술 어벤져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심장혈관외과 **최 종 범** 과장

전문분야_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 대동맥, 선천성 심장병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및 수련 | 전 원광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과장
전 전북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과장 | 전 대한흉부외과학회 학술위원장
현 JTD, JCTS, ICVTS 등 SCI(E) 논문 심사위원



심장혈관외과 **박 성 식** 과장

전문분야_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 대동맥, 선천성 심장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및 수련 | 단국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교수
명지병원(관동의대) 흉부외과 교수 | 현 대한흉부외과학회 정회원
현 ECMO 연구회 회원



정확한 검진으로 수명연장 돕는다

건강의학센터



병은 치료하는 것 못지않게 미리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상 신호가 오기 전 주기적으로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검진센터는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다.
우리 병원은 지난해 건강검진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건강검진이 가능해졌다.
국가검진과 기관종합검진, 개인종합검진 접수를 통합한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하고, 양질의 검진으로 지역민의 '건강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

건강검진, 내 몸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혼히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건강검진은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검진을 통해 건강을 확인하고, 더 큰 병을 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귀찮아서, 복잡해서 혹은 '설마 내가 큰 병에 걸리겠어?'하는 마음에 건강검진을 차일피일 미루곤 한다. 그런 생각은 내 몸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마디로 내 몸에 무책임한 행동이다. 안일한 생각으로 검진을 미루다 증상이 발현된 후에야 비로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증상은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나타나기 마련이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검사를 받는다면,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수명연장으로 이어진다. 국가건강검진을 진행하는 이유 역시 이와 일맥이 상통한다. 국민의 질병 예방과 수명연장에 그 목적이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등 6대 주요 암에 대한 검진을 지원한다. 이들 6대 암은 조기에 발견했을 경우, 완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수명이 연장되는 암이다. 잠깐의 수고로움 때문에 검진을 미루는 일만큼 내 몸에 무책임한 일도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고 싶지 않다면,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한다. 이제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이다.





원스톱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꼼꼼하게

건강의학센터는 이처럼 중요한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곳이다. 우리 병원은 지난해 10월, 건강검진센터를 리모델링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5평 규모로 암검진을 포함한 일반국가검진을 비롯해, 기관종합검진, 개인종합검진을 통합해서 접수하도록 하여 검진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국가검진자의 일반종합검진으로의 전환도 편리해졌다. 국가검진 외의 항목들을 손쉽게 검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성인병이나 암 검진 외에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질병은 바로 치매다. 80세 이상 고령 인구의 1/3이 치매 환자일 정도로 치매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뇌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수한 장비를 이용한 여러 검사도 가능하다. CT, MRI, PET CT 등 검진을 할 수 있다. PET CT는 몸의 대사활동 이상을 검사하는 PET과 몸의 구조적 이상을 검사하는 CT의 장점이 결합된 최첨단 분자영상 장비다. 머리부터 대퇴부까지 5mm 간격으로 촘촘히 확인하는 장비를 통해 1cm의 작은 종양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 보다 정밀한 검사를 원하는 검진자를 위한 숙박검진도 마련돼 있다. 1인 병실을 확보해 1박2일, 2박3일의 건강검진을 진행한다. 필요에 따라 검진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질환이 발견되면 병원 내 각 파트와 빠른 협진이 이뤄진다. 건강검진센터가 단순히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진료까지 연결해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의학센터와 가정의학과가 함께 금연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우리 병원 금연치료는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 병원 건강의학센터는 단순히 건강검진만 하는 곳이 아닌,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수명연장에 일조하는 '건강지킴센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마음까지 챙기는,
내·외과·소아과 중환자실

중환자실은 그 이름부터 무겁게 다가온다.
실제로 위중한 환자를 돌봐야 하기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그러한 긴장 속에서 기본 치료부터 응급상황까지 묵묵히 제 몫을 다하고 있는 곳, 바로 내·외과·소아과 중환자실이다.
환자 치료는 물론, 보호자의 불안감까지 없애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속 깊은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입실부터 퇴실까지 체계적으로

내·외과·소아과 중환자실은 '여정 지도'를 토대로 입실부터 퇴실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여정 지도'는 쉽게 말해 입원 안내문이다. 중증환자다보니 환자도, 보호자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에 대한 꼼꼼한 설명은 필수다. 우선 입실 후 상주하는 내과전공의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담당간호사가 직접 간호한다. 이어서 검사와 시술 후 집중치료에 들어간다. 중증환자의 대부분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통합적인 간호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처음 환자를 인계받으면 구강, 세발, 부분 침상목욕 등 위생 간호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기본 간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환자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말 못하는 환자들의 고통을 파악하고 상태를 예측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간호한다. 보동환자들의 경우 욕창 예방을 위해 두 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식사를 도와주고,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는 호스를 삽입해 영양분을 공급한다. 중증환자의 경우 영양 공급이 중요한 만큼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핀다. 만약 영양이 부족할 경우, 영양 집중 관리팀에 협조를 요청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영양과 함께 감염도 철저히 관리한다.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이 많은 곳이기에 환경과 물품, 장비의 철저한 관리는 기본이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피우다

중환자실은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곳이다. 환자들 대부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몸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매우 나약해진 상태다. 우리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그러한 절망 속에 머무르지 않고, 그 속에서 희망을 꽃피우고자 한다. 근무 전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기도한다. 환자를 대할 때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면밀하게 살피고 심적인 안정을 주도록 한다.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면회가 전면적으로 통제됨에 따라 여느 때보다 보호자들의 불안감도 커졌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보호자에게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필요한 검사를 안내한다. 직접 환자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에 속 깊은 위로를 건네기도 한다. 보호자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 역시 환자 치료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믿고 맡겨주는 마음을 알기에 환자를 더 면밀하게 살피고 꼼꼼히 돌본다.

한마음으로 응급상황을 이겨내는 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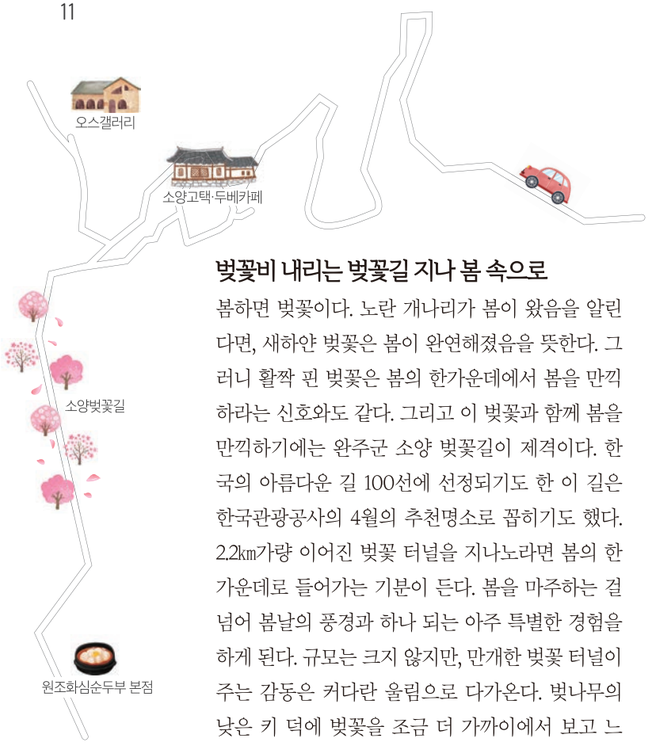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동료들이다.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면서 힘든 상황을 함께 이겨내는 가장 가까운 동지이자 버팀목이다. 40명 이상의 간호사가 각자 담당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며 힘든 부분을 함께 이겨내고 있다. 유기적인 협조로 응급상황을 해결했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순간은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져서 일반 병동으로 올라갈 때다. 지난해 11월 심장혈관외과가 생긴 뒤 대형병원에서 하는 치료와 간호를 담당한 일도 빼놓을 수 없는 보람찬 순간이다. 서울이 아닌 지방 병원에서 큰 수술과 치료를 했다는 사실에서 자부심마저 느낄 수 있었다. 대상자는 혈액순환 장애로 전신에 피부 문제가 발생하고 말초 부위 괘사가 진행된 환자였다. 일반 병동으로 올라가서 회복하는 모습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받기도 했다. 반대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경우, 가슴이 먹먹해지는 슬픔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 있기보다 다시 희망을 꿈꾼다. 그렇게 오늘도 환자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바라며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다.



봄날, 벗꽃, 그리고 쉼

완주군 소양벗꽃길

햇살 눈부신 봄날 만나는 새하얀 눈 꽃송이. 그리고 그 아래를 지나는 기분은 어떨까? 그 기분이 궁금하다면 완주군 소양면 벚꽃 길로 가보라. 전북체육고등학교에서 송광사로 이어지는 벚꽃 터널이 바로 그 길이다. 1940년생 벚나무에 활짝 핀 벚꽃은 마치 새하얀 눈 꽃송이 같기도, 톡톡 터질 것 같은 팝콘 같기도 하다. 벚꽃 터널에서 흩날리는 벚꽃과 봄을 만난 뒤, 완주군 명소로 떠나는 소양 벚꽃길 여행을 떠나보자.



벚꽃비 내리는 벚꽃길 지나 봄 속으로

봄하면 벚꽃이다. 노란 개나리가 봄이 왔음을 알린다면, 새하얀 벚꽃은 봄이 완연해졌음을 뜻한다. 그러니 활짝 핀 벚꽃은 봄의 한가운데에서 봄을 만끽하라는 신호와도 같다. 그리고 이 벚꽃과 함께 봄을 만끽하기에는 완주군 소양 벚꽃길이 제격이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기도 한 이 길은 한국관광공사의 4월의 추천명소로 꼽히기도 했다. 2.2㎞가량 이어진 벚꽃 터널을 지나노라면 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 봄을 마주하는 걸 넘어 봄날의 풍경과 하나 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만개한 벚꽃 터널이 주는 감동은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온다. 벚나무의 낮은 키 덕에 벚꽃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소양 벚꽃길을 더욱 특별하게 해준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는 말은 바로 이 벚꽃 터널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찬 꽃송이들은 시공간을 잠시 잊게 하고, 벚꽃 속에 갇힌 기분마저 들게 한다. 이러한 소양 벚꽃길을 더 재미나게 즐기고 싶다면 소양벚꽃길 축제를 찾아라.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초에 열리는 축제는 소양 벚꽃길의 아름다움을 보다 많은 이들과 즐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양한 문화공연을 비롯해 사진 전시회, 어르신 한글작품 전시회, 꽃꽂이 작품 전시회, 벚꽃길 시화전, 판매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름다운 벚꽃도 보고, 재미난 축제도 즐기는 소양 벚꽃길로의 여행은 완벽한 봄날 여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양고택


두베카페

오래된 고택과 현대적인 카페의 만남, 소양고택 · 두베카페

벚꽃 터널을 지나 만나는 완주군 명소들도 봄날 벚꽃길 여행에 즐거움을 더한다. 벚꽃터널은 혹시 시간여행을 떠나는 통로였을까? 벚꽃터널을 지나 3분가량 달리면 과거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오성한옥마을이 그곳이다. 이 오성한옥마을 입구에서 안으로 쑥 들어가면 소양고택과 두베카페를 만날 수 있다. 소양고택은 고창과 무안에 있던 130년 된 고택 3채를 옮겨와 조성한 곳이다. 문화재 장인들의 손길로 복원된 고택을 한옥 문화체험관, 한옥 숙소로 만들었다. 안채와 사랑채, 후연당, 가희당, 별채로 구성돼 있으며 전통한옥의 아늑함에 현대적인 편리함을 더했다. 위봉산과 종남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하면서도 고요한 까닭에 조용한 휴식을 취하기 그만이다. 뜨끈한 온돌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솜이불을 덮고 청하는 후연당에서의 하룻밤은 한옥 숙소에 대한 기대를 채우고도 남는다. 침대가 있는 객실 가희당은 한옥은 온돌이라는 고정관념을 유쾌하게 깨준다. 한옥이 품은 다양한 매력 중에서도 봄날 특히 더욱 빛나는 매력은 바로 마루다. 마루에 걸터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고즈넉한 풍경을 감상하는 재미는 소양고택이 선사하는 소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는 행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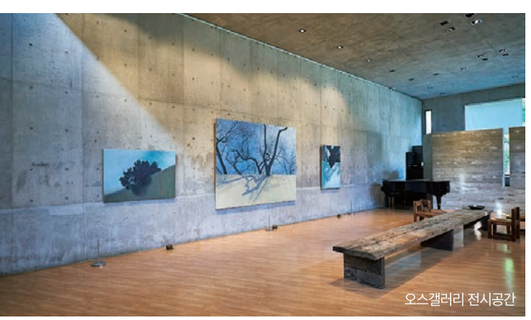
소양고택과 함께 운영하는 두베카페는 징검다리 진입로로 유명한 바로 그곳이다. 두베카페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어 골라 즐기는 재미가 있다. 노키즈존과 음악감상존이 나뉘어 조용히 음악을 즐기기도 하고, 6명 이상은 프라이빗 룸에서 보다 사적인 공간처럼 즐길 수도 있다. 프라이빗 룸은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프라이빗 룸 벽면의 커다란 통유리 창은 마치 액자처럼 사계절의 풍경을 담아낸다. 날 좋은 봄이면 테라스에 앉아 따스한 햇살과 살랑이는 봄바람을 맞는 것도 좋겠다. 북토크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니, 운 좋으면 차와 함께 색다른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다.

소양고택·두베카페 완주군 소양 면 광수만로 472-23
소양고택 0507-1417-794 두베카페 063-243-5222

완벽한 뷰와 함께 완벽함 쉼을 누리다 오스갤러리

오성한옥마을 정자 옆 왼쪽 길로 들어가면 저수지가 나온다. 방탄소년단이 다녀가서 유명해진 오성제다. 오성제 입구에는 '완주 BTS 힐링 성지'라는 큼지막한 안내판이 친절하게 방탄소년단이 다녀간 곳임을 알려준다. 오성제에는 작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방탄소년단이 사진을 찍어 일명 '방탄 소나무'로 불리는 나무다 오성제의 포토존으로 방탄소년단 팬인 수많은 순례자들이 다녀간 곳이기도 하다. 오스갤러리는 이 오성제를 바라보고 있는 카페다. 드넓게 펼쳐진 잔디마당과 오성제, 그리고 야트막한 산이 한데 어우러져 유려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오스갤러리는 이름 그대로 전시 공간인 갤러리와 카페를 함께 운영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오스갤러리의 마스코트 귀여운 차우차우가 맞이한다. 봄 햇살을 이기지 못하고 나른한 몸을 뉘고 있는 모습이 또 하나의 봄 풍경을 완성한다. 입구 오른쪽으로 자리한 작은 전시 공간을 지나면 로비가 나온다. 커다란 통유리 창과 군더더기 없는 나무 의자와 테이블이 조화를 이룬다. 커다란 규모만큼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된 오스갤러리는 실내에서 차 한잔하기도 좋지만 테라스에 나와 '저수지 뷰'를 감상할 것을 추천한다. 드넓은 잔디, 햇살이 반짝이는 저수지는 완연한 봄을 누리기에 그만이다. 오스갤러리에서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바로 오디오 룸이다. 오디오 시스템이 갖춰진 룸에서 듣고 싶은 음악을 맘껏 들을 수 있다. 일주일 전 예약하면 두 시간 동안 오롯이 나만의 음악감상실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1만 원이며, 음료는 별도 주문해야 한다. 벚꽃길 끝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완벽한 뷰와 함께 완벽한 쉼을 누려보자.

오스갤러리 완주군 소양면 오도길 24 063-244-7116


오스갤러리 전시공간


오스갤러리 카페



고소한 두부로 마음까지 채우다

원조화심순두부 본점

여행을 더욱 즐겁게 해주는 것. 다름 아닌 맛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아무리 멋진 풍경이라도 배가 고프면 눈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그러니 즐거운 여행을 원한다면 맛있는 음식을 더해보자. 소양 벚꽃길 여행을 더욱 즐겁게 해줄 음식은 바로 순두부찌개다. 고소하고 뜨끈한 순두부로 마음까지 채워주는 원조화심순두부를 소개한다.

5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원조 순두부찌개집

부드러운 순두부에 돼지고기와 바지락을 넉넉하게 넣고 얼큰하게 끓인 순두부찌개는 완주 8미 중 2미에 해당할 정도로 그 맛을 인정받았다. 그중에서도 6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원조화심순두부'는 소양 벚꽃길에 꼭 찾아야 하는 맛집으로 충분하다. 이 집의 순두부찌개는 고소한 순두부와 씹는 맛이 좋은 돼지고기 완자, 칼칼한 국물이 한데 어우러져 입맛을 돋운다. 전주에서 진안으로 가는 길목 왼쪽에 자리한 이 집은 커다란 한옥이 위풍당당하게 원조임을 뽐내고 있다. 이 '원조화심순두부'의 역사는 195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조화심순두부'로 문을 연 것은 1983년이지만, 초대 주인장이 6.25 피난 와서 전주 남부시장에서 두부와 순두부를 만들어온 게 그 시작이다. 지금은 3대째 대를 이어 그 맛을 이어오고 있다.

양념한 돼지고기로 입맛을 사로잡다

이 집 순두부찌개는 양념한 돼지고기를 넣고 끓여 특별한 맛을 낸다. 현재 대표의 어머니가 만들어낸 이 순두부찌개가 입소문을 타면서 먼 곳에서부터 이 집을 찾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이러한 독창적인 맛에 정성을 더해 '원조화심순두부'의 순두부찌개가 탄생한다. 뜨끈하고 고소한 두부를 크게 한 숟가락 떠서 맛보면 담백함이 입안 가득 퍼진다. 두부 맛을 음미할 새도 없이 부드럽게 목을 타고 넘어간다. 뜨끈함이 목을 타고 몸으로 퍼지는 순간, 다음 숟가락질로 이어진다. 그렇게 부지런히 맛본 순두부찌개는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준다. 바로 튀겨주는 콩으로 만든 도넛과 부드러운 두부 돈까스도 별미다.

원조화심순두부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1051 063-243-8268


한 손과
한 손이 만나서
하나의 손이
탄생합니다.
한 손과 한 손을 더한 두 손이 아닙니다.
한 손과 한 손이 만나 하나의 손이 됩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호흡을 맞춥니다.
긴박한 순간일수록, 정교한 움직임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한몸처럼 완벽한 호흡으로 당신의 삶에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병원은 당신을 위해 기꺼이 하나가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최초가 된 선교사, 예수병원 설립자 **마티 잉골드**

Mattie Ingold, 1867-1962



"제가 해외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특권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예수병원, 사랑의 수고]

어떤 일을 '사랑의 수고'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 구절은 성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3).

예수병원의 120년이 넘는 역사 속에는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헌신해 온 선교사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왕진가는 예수병원 초대원장 마티잉골드(1898년)

1897년, 미국 볼티모어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푸른 눈의 의사가 전주에 왔다. 당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던 한국인을 위해 의료 선교사로 자원한 마티 잉골드 선교사의 이야기다. 1898년 11월 3일 전주성문 밖 언덕에 조그마한 초가지붕 진료소를 세우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첫 진료를 시작함으로써 전주 예수 병원의 역사가 시작됐다. 마티 잉골드는 1867년 5월 3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르노아에서 출생하여 윈트롭(Winthrop)대학을 졸업하고, 의료선교사가 되기를 결심한 후 1896년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이 학교 역사상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1897년 7월 선교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록힐을 떠나기 전날 밤 친구들에게 한 송별사에서 마티 잉골드가 선교사로써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 작별은 달콤한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수년동안 소망하고 노력하고 기다려왔고 기도해온 바가 이 작별로 인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해외 선교 사업에 여러분의 대표가 있습니다. 이 특권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해외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특권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저에게서 성경과 그 말씀에 대한 저의 믿음을 빼앗아 간다면 제가 그 낯선 땅으로 가서 홀로 저의 생을 보내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권유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1897년 7월 18일 저녁, 남 캐롤라이나 록힐 장로교회 작별인사, 마티 잉골드 3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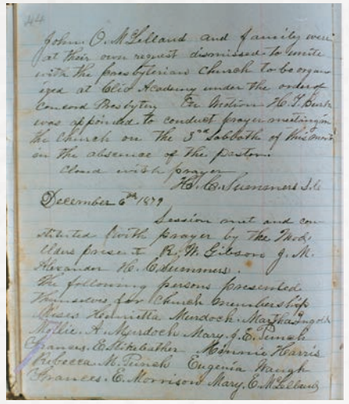
여정을 시작한지 두달만에 한국에 도착한 마티 잉골드는 그해 11월 마침내 전주에 도착했다.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쌓인 인구 만 명의 도시였던 당시의 전주는 동학 농민 혁명의 아픔이 채 아물지 않은 혼란과 가난의 땅이었다. 이곳에서의 본격적인 의료 사역 시작에 앞서 그녀는 1년동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러한 예수병원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어학 공부는 이후 마지막 미국인 병원장 설대위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전주 의료 사역의 밑거름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는 지금 말하는 것을 배우는 신나는 어린 시절을 두 번째로 경험하고 있다. 나의 어학공부는 매우 느렸다. 나는 존칭어와 낮춤말 그리고 중간 정도의 말을 아주 형편없이 섞어서 쓰고 있다."

1897년 11월, 마티 잉골드 일기, 30세



마티잉골드의 진료



마티 잉골드 일기장



마티 잉골드 결혼식 1905



마티 잉골드 노년

1898년 11월 3일, 드디어 첫 진료를 시작한 마티 잉골드는 개소 첫 날 6명을, 첫 달에 100명 정도를 진료했다. 그 당시의 의료는 예산과 공급선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뛰어난 의술을 자랑했던 마티 잉골드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기초 위생과 청결에 중점을 두었고, 종기의 절개, 설사와 이질 치료, 백내장 제거, 화상 치료, 분만 등의 진료에도 정성을 다했음을 알 수 있다. 기초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완치가 되었고, 침을 놓았던 자리의 고름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진료의 효과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효과적인 그녀의 의료 사역은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와 서양인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을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처음에 환자의 남편들은 자기 부인에게 외국 여인이 주는 약을 먹지 못하도록 했으나 잉골드의 헌신과 서양의학의 효과를 경험하며 기독교와 서양인을 점차 신뢰하게 되었다.

활발한 진료 활동을 펼치며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던 마티 잉골드는 1904년 5월 안식년 휴가로 1년간 본국에 돌아갔다. 이후 1905년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우연히 그녀는 한국 최초의 딸기를 도입하게 된다. 텃밭 재배용으로 가져온 딸기가 이전의 한국에는 전혀 없던 것이기 때문이다. 딸기 도입에 대한 기록은 기전여학교의 설립자 랭킨(N. B. Rankin, 1879-1911) 선교사의 편지 일부에 나와 있다. (※랭킨 선교사는 한국에서 4년 6개월을 사역하면서 미국의 동생에게 50통의 편지를 남겼는데, 그녀의 편지에는 한국 사랑의 마음과 함께 당시 전주 지역의 생활상이 잘 표현되어있다.)



"딸기는 조선에 자라는 토종이 아니며, 2년전 잉골드가 50대를 들여와 전주 화산동에 정착시켰으며, 전국으로 확산 보급했다."

1907년 5월 27일 랭킨의 편지

이후 마티 잉골드는 1905년 9월 그녀가 처음 한국에 도착할 때 마중을 나왔던 테이트(Lewis B. Tate)목사와 8년의 열애 끝에 결혼했으며, 결혼 후에는 남편과 더불어 농촌 선교에 전력했다. 1910년에는 어렵게 임신한 후 여아를 사산하는 개인적인 불행을 겪었는데 이후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다. 진료소 초기에는 연간 50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을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던 마티 잉골드의 의료 사역은 당시 한국의 미신 숭배 사상, 그리고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 우선 정책에 따른 진료소 운영에 대한 지원 축소, 건강 악화 등의 문제로 1925년 4월, 끝을 맺게 되었다. 이후 젊은 선교사들에게 역할을 넘기고 28년간의 의료 선교 사업을 마친 그녀는 1925년 남편 테이트 목사와 함께 미국 플로리다주 프로스트 프루프에 정착해 1962년에 생을 마감했다.

마티 잉골드가 자신도 모르게 예수병원의 전신이 되는 진료소를 설립한지 100년이 지난 1998년, 미국 프로스트 프루프 공동묘지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이 추모 예배는 마티 잉골드가 봉사했던 록힐 제일장로교회의 교우들과 미국 장로교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인사들, 지금은 고인이 된 예수병원 12대 원장 설대위 선교사를 비롯한 예수병원 직원들이 함께 모여 100년 전 그녀가 오직 소명감으로 행했던 사랑의 수고에 대해 나누는 자리였다.

그로부터 또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예수병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선교사는 마티 잉골드이다. 그녀 자신조차 예수병원의 설립자로 한국 최초의 딸기 보급자로 기억될지 몰랐던 123년전, 의료 선교의 소명만을 위해 미지의 땅 한국으로 향했던 한 여인의 용기와 사랑의 수고는 새롭게 맞이할 예수병원의 미래와 또 다른 부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뜻깊은 길잡이로 기억될 것이다.

"어느 하나님의 종이 말했듯이 나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밝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에게 무엇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 그 무슨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나에게 닥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바르고 좋은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것과, 지나치게 내 자신의 일과 세상이 도움에 의존할까 하는 것이다. 아버지여, 이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시며 항상 당신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소서".

1897년 7월 18일 작별의 밤, 마티 잉골드 일기, 30세





향긋한 봄날의 맛

냉이된장국

바야흐로 봄이다. 햇살과 바람이 온기를 가득 품은 봄이다.
마음은 찬란한 봄날을 만끽하고 싶은데 까칠한 입맛이 도통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겨울을 보내느라 입맛도 지쳐버린 듯하다.
이럴 땐 냉이 된장국이 정답이다. 향긋한 향에 취하고, 쌉싸름한 맛에 취하는 바로 그 냉이 된장국.
입안 가득 머금은 냉이 된장국과 함께 입맛도, 건강도 잡고 봄 맞으러 가자.

봄날의 의식과도 같았던 '봄의 전령사'

봄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는 이맘때가 되면, 코끝에서 구수한 냉이 된장국 향이 난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봄하면 향긋한 꽃향기보다 더 향긋하고 구수한 냉이 된장국을 떠올리기 시작한 때가. 꽃보다 된장국이라니, '참 낭만 없다'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들 어떠리. 향긋한 냉이와 구수한 된장의 환상적인 만남 앞에서는 낭만쯤이야 잠시 넣어두고도 남을 일이다. 어린 시절, 한 집 걸러 한 집 밥상에 올라오는 수많은 된장국 중에서도 냉이 된장국은 유독 특별했다. 언제고 먹는 된장국이지만, 냉이가 들어감으로써 '봄날 밥상'을 완성시켰기 때문이리라. 어디 그뿐인가. 봄을 대표하는 여러 식재료들 중에서도 냉이의 존재감은 유독 빛났다. 어쩌면 냉이는 봄 그 자체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해마다 봄이 되면 마치 의식처럼 냉이 된장국을 먹었다. 냉이 된장국을 먹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봄맞이를 한 것만 같았다. 그렇게 엄마가 정성스레 끓여낸 냉이 된장국을 맛보며 봄을 맞이하곤 했다. 내게 냉이 된장국은 단순한 된장국이 아니라, 봄이 왔음을 알리는 봄의 전령과도 다름없었다. 향긋한 향 뒤에 쌉싸래한 맛을 감춘 냉이의 빤하지 않은 매력도 참 좋았다.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안겨주는 즐거움이 흥미로웠다. 이처럼 맛과 재미까지 갖춘 냉이 된장국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리. 그런 매력이 있었기에, 봄날 단골 메뉴 냉이 된장국이 지겹지 않았던 게다.

잎부터 뿌리까지 영양 담뿍 담은 냉이

봄철 대표 식재료 냉이. 봄이면 반드시 먹어줘야 하는 냉이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다. 특히 비타민 A, B1, C가 풍부해 기력 회복과 춘곤증에 좋다. 그저 맛만 있는 식재료가 아니라, 겨울을 나느라 지친 몸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봄의 불청객 춘곤증을 이겨내게 하는 귀한 식재료다. 칼슘을 비롯해 칼륨, 인, 철 등 다양한 무기질 성분도 지니고 있어 지혈과 산후 출혈 등을 처방하는 약재로도 사용된다. 동의보감에서는 냉이를 '국을 끓여 먹으면 피를 간에 운반해 주고, 눈을 맑게 해 준다'고 기록하고 있다. 잎에는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뿌리에는 알싸한 향의 콜린 성분이 있어 간경화, 간염 등 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생리불순을 비롯한 각종 부인병 완화에 효과가 있다. 냉이는 잎과 줄기, 뿌리까지 모두 먹을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식물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버릴 게 없는 식물이다. 보통 국이나 찌개류로 많이 활용하며, 전이나 튀김, 무침 등을 만들어도 그 맛이 그만이다. 냉이를 고를 때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잎과 줄기가 큰 냉이보다 작은 어린 냉이가 맛있고, 냉이 특유의 향을 내는 뿌리는 단단하지 않고, 잔털이 적은 게 좋으니 말이다. 겨울이 추울수록 뿌리에서 나는 냉이 특유의 향이 더 강해진다고 한다. 유독 추웠던 지난겨울을 보내고, 더욱 짙어진 향을 품은 냉이와 함께 건강한 봄날을 보내는 건 어떨까.

냉이된장국 레시피

재료 냉이 150g, 멸치다시마육수, 된장, 다진마늘, 양파 1/4개, 대파 1대, 홍고추 1개, 두부 1/2모

1.



냉이는 깨끗이 씻어
흙 묻은 뿌리를 손질한다

2.



대파와 홍고추를 적당한
크기로 송송 썰어놓는다

3.



냄비에 멸치 다시마 육수를 넣고
끓어 오르면 된장을 넣고 풀어준다.

4.



양파와 청양고추,
냉이를 넣고 끓인다

5.



두부와 대파를 넣고
한소끔 더 끓여주면 완성




영화 <기생충> 장면

"요즘도 결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기생충> 속 결정적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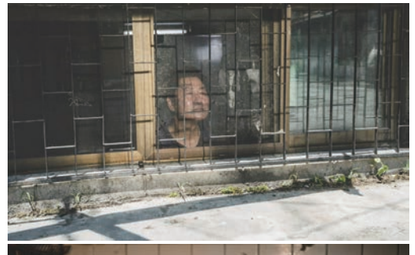
질병은 영화의 단골 주제이자 소재다.
영화는 때로 질병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결정적 장면에 등장시키기도 한다.
개봉 후 대한민국은 물론,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비롯해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각종 상을 휩쓸며 화제를 모은 영화 <기생충>.
이 영화에도 여러 질병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특히 결핵은 결정적 장면으로 등장하며 극에 긴장감과 흥미를 더한다.
영화에 등장한 결핵 이야기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본다.

〈기생충〉의 결정적 장면 속 결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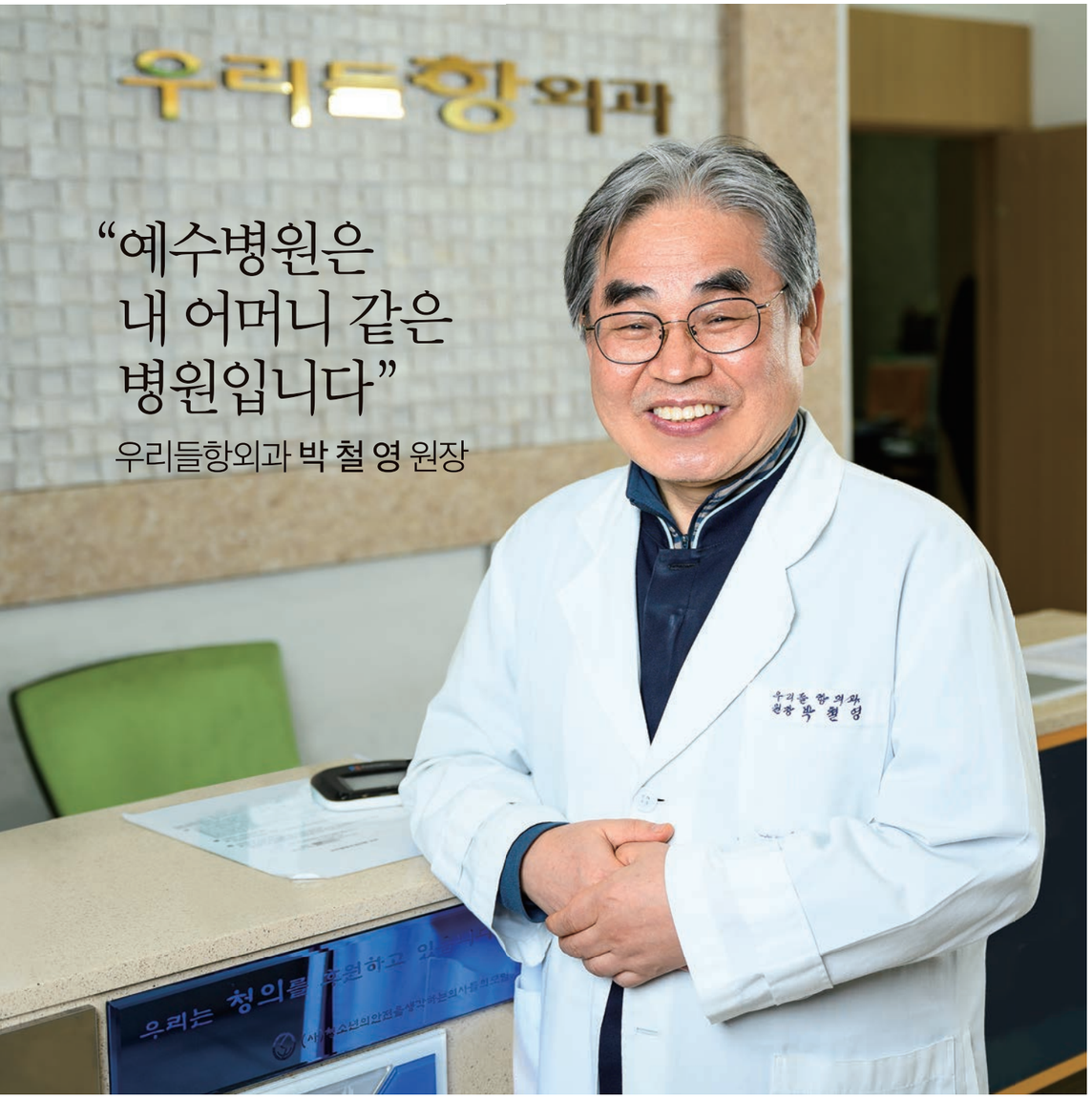
개봉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영화 <기생충>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지난 3월 11일 열린 제40회 황금촬영상에서 최우수작품상과 남우주연상(송강호 분)을 수상하며 식지 않은 열기를 입증했다. 이 <기생충>에는 기택(송강호 분)의 가족들이 박사장(이선균 분)네로 입성하는 과정들을 등장한다. 아들 기우(최우식 분)와 딸 기정(박소담 분)에 이어 기택이 운전기사로 기생충처럼 스며들고 마지막으로 아내 충숙(장혜진 분)이 입성하며 가족 모두 박사장네로 기생충이 되어간다. 마지막으로 박사장네 사람이 되는 충숙의 입성 과정에서 바로 이 결핵이 등장한다. 기택 가족은 박사장네와 가족과도 같았던 집사 문광(이정은 분)을 쫓아내기 위해 결핵을 이용한다. 평소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문광을 결핵 환자로 만들어 쫓겨나게 하는 것이다. 기정이 문광의 복숭아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기택이 병원에 간 문광을 촬영하고 박사장의 아내 은교(조여정 분)에게 보여준다. 조작된 증거를 만드는 과정이다. 사진과 함께 문광이 활동성 결핵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은교의 의심을 키운다. 기택 가족은 합심해서 마침내 은교가 보는 앞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도록 작업한다. 그리고 핫소스를 뿌린 휴지가 결정적 증거가 되어 문광은 결국 쫓겨나게 된다. 도대체 결핵이 뭐길래 부잣집 사모님의 심기를 건드리고, 가족과도 같았던 사람을 단칼에 자르게 했을까? 결핵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이 궁금하다.

결핵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진실

"요즘도 결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이 대사처럼 흔히 결핵은 과거의 질병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연간 15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약 1000만 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가 발생한다. 현재 진행형인 병이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결핵은 전염성 있는 환자가 비말(침방울)을 통해 결핵균이 공기 중에 나오고, 공기 내 떠다니던 결핵균을 다른 사람이 흡입하면 감염되는 공기 감염병이다. 활동성 결핵환자 한 명이 증상 발현 후 진단까지 약 200여 명 이상을 접촉하는데 이 중 30~50% 정도가 결핵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핵은 결핵균이 체내에 감염돼 나타나는 질환이다. 하지만 감염됐다고 모두 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접촉자의 30%가 감염되며 감염된 사람의 10% 정도가 결핵 환자가 된다. 나머지 90%의 감염자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도 한다. 결핵 증상은 호흡기 증상과 전신 증상으로 구분된다. 호흡기 증상으로는 기침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이외에 객담(가래), 혈담(피 섞인 가래), 호흡곤란, 흉통이 동반되기도 한다. 피를 토하는 객혈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결핵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발생한다. 전신 증상으로는 발열, 야간 발한, 쇠약감, 신경과민, 식욕부진, 소화불량, 집중력 소실 등의 증상이 있다. 결핵 환자 대부분 잠복결핵감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 평소 결핵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 중 결핵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단시설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일부 환자의 경우 초기 검사 결과로 감염 여부를 알기 어렵게 때문에 흉부CT 검사나 기관지 내시경 등을 통해 진단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빠른 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 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가량 소요되며, 꾸준한 약물 복용이 중요하다. 결핵균에 감염됐다고 해도 개인 면역력에 따라 발생 유무가 결정된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과음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 관리를 하도록 한다.







“예수병원은 내 어머니 같은 병원입니다”

우리들항외과 박 철 영 원장

비록 지금은 함께하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 병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곳곳에서 ‘예수병원 정신’을 잇고 있는 동문들이다.
설대위 박사의 마지막 수련의인 우리들항외과 박철영 원장도 그중 하나다.
박철영 원장을 만나 우리 병원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과 그가 생각하는 우리 병원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의사 생활의 버팀목이 되어준 예수병원

예수병원과의 인연은 3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6년, 예수병원에서 인턴으로 시작해 1991년 외과의 수련을 마쳤으니까요. 1992년부터 3년간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인연을 이어갔지요. 그러니 예수병원은 제 인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병원은 한마디로 내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정신적 고향이자, 의사로서 자세를 배운 곳이거든요. 훌륭한 스승 정을삼 선생님을 비롯하여 스승님들 선배님들 동료 후배님들 에게 가르침을 받은 일은 제가 의사 생활을 하는 데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실력뿐만 아니라 예수님 정신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병원은 그저 물질만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에요. 의술로서 예수님 정신을 이 땅에 펼치는 도구가 되는 병원입니다. 예수병원에서 수련하고 근무하는 동안 그런 정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외과 의사는 상처를 통해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돌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술이 생각처럼 안될때 내 자신에 대한 분노도, 원인을 핑계 대지 않고 정직하게 생각하는 것도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지요. 참된 외과 의사라면 이를 피하지 않고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정직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사물을 볼 때 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요? 이 아픔을 통하여 자그마한 차이와 반복으로 진보진화 되는 세상이 아닌가요?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예수병원에서 배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감내할 부분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진료의 자세로서 환자에게 더 좋은 삶을 만들어주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는 것 말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도, 사회도 세상도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게 의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를 만들어준 곳이 바로 예수병원입니다. 의사의 자세와 의사 생활을 하는 버팀목이 되어준 데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 심장 속에 살아 있는 설대위 원장님

예수병원을 떠올릴 때 늘 함께 떠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 심장 속에 살아 숨 쉬는 설대위 원장님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한 장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1990년, 정년을 앞둔 설대위 원장님의 마지막 수술 사진입니다. 1954년 한국에 오신 후, 의술로 봉사해온 36년간의 마지막 순간이기도 하지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설대위 원장님이 사랑한 제자의 어머니였기에 더 큰 중압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게다가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고뇌는 더하셨겠지요. 정년을 앞두고 그런 수술을 맡으신 이유는 평소 설대위 원장님이 강조하신 외과 의사의 자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설대위 원장님은 외과 문하생들에게 측은지심, 실력, 정직, 성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외과 의사는 항상 측은지심으로 환자를 대하고, 실력을 갖추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러한 원장님의 정신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당시 제자에 대한 사랑과 제자의 어머니에 대한 측은지심이 바탕이 되어 수술에 임하셨던 게지요. 그러한 설대위 원장님의 정신을 바탕으로 2003년, 우리들항외과를 열었습니다. 원장님처럼 인간의 육신을 통해 영혼의 가치를 보는 품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이지요. 의사는 단순히 병에 걸린 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과 정신적인 부분까지 모두 볼 수 있는 전인(全人)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해야 비로소 환자를 온전히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994년부터 대장내시경을 실시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대장항문외과에서 대장내시경을 해온 사람으로서 항문 전문병원을 통해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합니다. 안심, 만족, 신뢰를 주는 병원을 지향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신을 의료사업으로 펼치고 싶습니다 . 비록 지금은 예수병원과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나를 죽여 당신을 살게 하겠다’던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며 예수병원에서 배운 정신을 늘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들항외과 박 철 영 원장
1991 전주예수병원 외과 전공의 수련
1991~1994 예수병원 외과 과장(대장항문 , 소아외과)
1996 영국 St. Mark hospital, coloproctology, academic course 연수
1997~1998 일본 아키다 적십자 병원, 소화기 내시경 센터 연수
2003~현재 우리들항외과 대표원장

NEWS



예수병원 응급의료센터, 전라북도지사 표창 수상

예수병원은 지난 12월 31일, 지역응급의료센터로써 지역사회의 응급의료 제공에 힘쓰고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북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예수병원 응급센터는 2019년 9월 1인 고압산소 치료기 2대를 도입하여 전북 최초로 고압산소 치료설비를 도입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뿐만 아니라 여러 응급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소아응급의료에 많은 관심을 갖고 365 24 야간 아동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응급의료센터로써 지역사회의 응급의료 제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더욱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소아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공모에 지원 후 선정되었으며 2021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철승 병원장은 “예수병원이 전라북도민의 응급의료에 도움이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첨단 장비와 의료진, 넓고 쾌적한 소아전문 응급 진료환경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로 지역민의 만족도가 전국 최고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퇴원손상심층조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예수병원은 지난 12월 31일 질병관리청의 ‘퇴원손상심층조사’사업에서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손상감시사업인‘퇴원손상심층조사’는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증진과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기반의 만성질환 및 손상예방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 주관부서인 예수병원 의무기록과는 2006년부터 퇴원요약정보 및 손상환자 정보를 성실하게 조사하여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가단위의 대표성 있는 보건통계 생산 및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철승 병원장은 “예수병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만성질환관리 및 손상예방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예수병원은 2015년 12월에도 금번 수상과 동일한 부문에서 질병관리본부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1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협약 대상기관으로 선정, 국고지원금 2억 4천만 원 지원받아

예수병원은 지난 2월 4일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1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협약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2억 4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예수병원은 캄보디아 종합병원 설립을 준비하던 중 애터미와 협약을 맺어 국내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1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중대형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사업비용 3억 4천만원 중 2억 4천만원을 지원받아 연내에 ‘캄보디아 종합병원 설립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철승 병원장은 “예수병원은 해외선교사에 의한 성공적인 의료진출로 낙후되었던 국내 의료수준을 단기간 내에 최상위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가 의료정책 및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의학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수년간 캄보디아 현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하여 왔고 이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와 선교의료진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확보하여 왔다.”며 “이러한 선진 의료기술을 캄보디아에 전함으로써 한국의 선진의료를 널리 알리며, 예수병원의 설립이념인 의료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도내 첫 코로나19 백신 초저온 냉동고 확보, 백신 접종 준비 착수

예수병원은 지난 2월 10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보관을 위한 의료용 초저온 냉동고를 전라북도 내에서 처음으로 확보하여 백신접종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입된 냉동고는 미국 직수입 NUAIRE사의 NU99828 초저온 냉동설비로 영하 40도에서 영하 86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최대 4만 9천 바이알의 백신을 보관 할 수 있다. 김철승 병원장은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전북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전직원 모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가 조기종식돼 다시 평범한 일상들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수병원은 원내 백신 접종 모의 훈련을 통해 안전한 백신 투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1분기 내에 모더나 백신 보관 초저온 냉동고 1대와 해동 냉장고 1대를 추가로 더 확보하여 국민 안심병원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NEWS



‘전주형 통합돌봄 2021, 덕진구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예수병원은 지난 2월 26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변재관 통합돌봄컨설팅단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김종구 전주시의사회장, 이홍락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어르신 통합돌봄 2021,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예수병원이 덕진구의 16개동을 중심으로, 완산구 19개동 중 전주시의사회가 7개동을,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12개동을 담당하게 된다. 덕진구는 전주시가 본원에 협력요청을 보내 2021년부터 예수병원이 덕진구 전체를 담당하게 되었다. 전주시의 예산 지원으로 자부담 없이 진행될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사업은 덕진구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늘푸른 건강학교 운영을 통해 건강증진을 위한 일상생활개선 활동, 이웃사랑의료단을 통한 이동검진, 재가진료 전개를 통해 의료복지를 제공하게 된다.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해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예수병원이 뜻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지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수병원 성형외과 개소

예수병원은 안면거상술의 대가인 김주헌 원장을 영입하여 설대위기념 암센터 2층 외과 맞은편에 성형외과를 개소하고 3월 2일 오전 8시에 개소식을 가졌다. 김철승 병원장은 “최근 심장혈관외과 개소에 이어 성형외과까지 개소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예수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과 우수 의료진 발굴 및 영입을 통해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헌 원장은 안면거상 및 주름살 제거 수술을 중심으로 눈, 코, 안면윤곽, 가슴수술 등의 미용성형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성형외과 개업을 통해 얼굴 중심의 미용 수술 노하우를 쌓는 등 미용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김 원장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동안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증가했다. 최첨단 의료장비와 1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환자 개개인에 맞는 섬세하고 전문적인 수술로 삶의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수병원 성형외과 김주헌 원장은 3월 2일자로 안면거상, 안면윤곽, 눈·코성형, 보톡스, 필러의 전문분야의 진료를 시작했다.

Donation



이성숙·조재승 부부
발전기금 5백만 원 후원



㈜태운종합건설 민경춘 대표이사
발전기금 5백만 원 후원



전주 새중앙교회
발전기금 5백만 원 후원



척재활의학과의원 고재영 원장
발전기금 2천만 원 후원



전주풍남로타리클럽 보조금 전달
7만 달러 (예수병원 새힘암환자후원회)



‘밥맛나는 세상’ 전주예수병원점
발전기금 3백만 원 후원

#고맙습니다

1월 친절직원
간호국 81병동



저는 신장이식 수술하고 입원하게 된 환자입니다. 매시간 소변량 체크하고 바쁜 업무 중에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간호사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많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친절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시며 불편하지 않게 살펴주셔서 입원하는 동안 내 집처럼 편안하게 치료받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자리에 없을 때 불편 한데는 없는지 들여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원하는 동안 받은 고마움은 건강 열심히 챙기는 걸로 보답하겠습니다.

박 ○ 현 환자 올림

2월 친절직원
순환기내과 **류 제 영** 과장님



5년 전 류제영과장님께 시술을 받았습니다. 올 1월 가슴이 답답해 과장님을 다시 뵙고 진료 받는데, 걱정 많던 저에게 의사의 본분을 다하며 권위 의식 없이 환자에게 편안하게 설명해주시는 말 한마디는 만병통치나 다름없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위로와 친절한 설명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 ○ 주 환자 올림

#칭찬합시다

고객만족센터 **임 영 란** 선생님

(추천인 : 김철승 예수병원장)

먼저 웃는 얼굴로 상대방에게 인사를 건네고
환자분들에게 친절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수병원 "직원 칭찬릴레이" 첫 번째 주인공은
고객만족센터에서 근무 중인 **임영란 선생님**입니다.



소중한 나눔으로 일구는 따뜻한 동행,
예수병원 발전기금 모금

우리의 작은 나눔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예수병원은 의료기관 최초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법인으로 지정받아 소중한 정성을 모아 진료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의료봉사, 선교활동 및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으로 희망의 싹을 틔우는 여러분의 고귀한 동참을 기다립니다.

기부금 용도

- **진료환경 개선** (진찰실, 병실, 현관 등 리모델링)
- **교육환경 개선** (세미나실, 최신 교육기자재 도입)
- **연구기금** (기독의학연구원 연구비, 각종 암과 난치성 질환 연구)
- **최신 의료장비 보강, 불우환자 지원** (저소득층 진료, 외국인 노동자 진료 등)
- **예수병원 박물관 운영, 기타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국민건강 및 복리에 기여, 의료선교 등)

기부자 세제혜택 안내

(재)예수병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시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과 법인에게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하여 세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재정부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 2007.9.28)

후원참여 방법

- **후원형태**
  현금, 부동산, 유기증권, 채권, 귀중품, 기자재, 로얄티 등 모든 물품과 자산이 가능합니다.

- **후원방법**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ARS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예금주 (재)예수병원유지재단

기업은행 304-020172-02-309 | **신협은행** 131-003-861449
전북은행 510-23-0317364 | **국민은행** 751901-01-465000
농협은행 658-01-031404
예수병원 ARS후원 060-707-1515 (1통화 2,000원)

기부금 예우

후원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우해 드립니다. (해당 •)

후원금 / 예우내용		5백 만원 미만	5백 만원 이상	1천 만원 이상	5천 만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감사장 / 감사패 전달		감사장	감사장	•	•	•	•	•	•
차량 출입증 교부(무료주차) 후원인 예우카드 교부				10년	평생	평생	평생	평생	평생
진료비 감면 혜택(본인 및 배우자) 예우기간 동안 300만 원 한도				3년	5년	명예 직원예우	명예 직원예우	명예 직원예우	명예 직원예우
종합건강진단 (본인 및 배우자)	적용 금액		50만원	150만원	150만원	명예직원예우	명예직원예우	명예직원예우	명예직원예우
	적용 기간		1년	1년	3년	5년	평생	평생	평생
예방접종 (본인 및 배우자)	독감			연 1회 3년	연 1회 5년	연 1회 평생	연 1회 평생	연 1회 평생	연 1회 평생
	대상포진(1회제공)			•	•	•	•	•	•
	폐 구균(1회제공)			•	•	•	•	•	•
병원 간행물 발송		•	•	•	•	•	•	•	•
병원 주요행사 초청		•	•	•	•	•	•	•	•
병원 기념품 제공		•	•	•	•	•	•	•	•
초청 만찬		•	•	•	•	•	•	•	•
건물벽면 기부자성명 영구보존		•	•	•	•	•	•	•	•
센터, 병실 등에 기부자 성명(아호) 명명					•	•	•	•	•
진료 편의 제공					•	•	•	•	•
의전 서비스							•	•	•
마스크 부조 및 제막식								•	•



고품격 예방의료서비스의 시작,

예수병원 건강의학센터

예수병원 건강의학센터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종합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쾌적한 환경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예수병원 건강의학센터만의 특별한 서비스

01. 건강검진 담당 간호사와 상담 후 문진 및 건강검진 항목선택
02. 질병에 따라 각 전문의와 연개하여 진료
03.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결과 평가 및 상담
04. 건강의학센터 전문의료진 20명 배치

검진 프로그램 안내

01. 기본검사 항목
예진 및 신체계측, 체지방측정, 호흡기계검사, 신장기능검사, 안과검사, 당뇨검사, 순환기계검사, 소화기계검사, 갑상선검사, 면역검사 및 류마티스검사, 소변검사, 골대사지표검사, 골밀도검사, 대변검사

02. 다양한 프로그램
- 기본 종합 프로그램(심혈관계 질환 암 질환)
- 주요 암 프로그램(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자궁암, 유방암, 갑상선암, 폐암 등)
- 추가 검진 프로그램(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검진을 1박2일 또는 2박3일 동안 검사)
- 맞춤 정밀 프로그램(뇌, 소화기, 심장, 호흡기, 여성, 남성)
- 연령별 프로그램(40대, 50대, 60대 이상)

접수 안내

방문 예약 _ 예수병원 본관 2층 건강의학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후 예약
전화 예약 _ 063)230-1514/1515/1516 전화 상담 후 예약 (평일 08:00~17:00)

최첨단 의료시스템과 장비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료진이 **고객 건강 관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진료일정 안내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가정의학과 230-1510	조충환	노인의학, 성인병, 암검진, 금연	월, 수, 목	월, 목
	이진희	성인병, 건강증진, 영양치료, 비만관리,금연	화, 수	화, 수
	이재성	성인병, 암검진, 건강증진, 영양치료 ,금연	월, 화, 금	월, 금
	김호철	치과, 건강검진	월~금	월~금
내과 내분비내과 230-1300	송선경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내분비질환	월, 수, 목, 금	월, 수
	김지혜	당뇨병, 갑상선질환, 뇌하수체 질환, 골대사질환, 부신 질환, 내분비질환	월, 화, 목, 금	화, 목
	백초옥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대사질환,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월, 수, 목	월, 화, 금
	김선희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대사질환,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화, 수, 금	수, 목, 금
류마티스내과 230-1300	홍명주	관절염, 통풍, 루푸스, 근섬유질환, 결체조직질환	월, 화, 목	월, 수, 금
소화기내과 230-1300	조진웅	위장관질환, 치료내시경	월, 화, 목	-
	조용근	간, 위장관질환	월, 목, 금	-
	김지웅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화, 수, 금	수
	정금모	간, 위장관질환	월, 수	목
	이영재	위장관질환, 소장질환, 염증성장질환, 영양치료	수, 금	월, 목
	양민아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화, 금	수
	김병선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월, 수, 목	-
	송재선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화	금
	이원동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	수, 금
	양성열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	화, 목
	허대혁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	월
	허 현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	화
순환기내과 230-1350	류제영	심장,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월, 화, 목, 금	-
	전성희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성인선천성심질환	수, 금	수, 금
	박종필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말초동맥질환시술	월, 화	목, 금
	송지은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수, 목	월, 수
	오성식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관상동맥중재술, 심부전, 부정맥	월, 화, 목	화
	김다혜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	화, 목
	이지하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	-
신장내과 230-1300	이광영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신장이식	월, 수, 목	월, 수
	선인오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신장이식	월, 화, 목, 금	목
	조아영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수, 금	화, 목, 금
	오주환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화	월, 화, 금
	임지혜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	수
혈액종양내과 230-1300	박효숙	혈액, 혈액/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화, 수, 금	월, 목
	조미영	혈액, 혈액/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월, 목	화, 수, 금
호흡기·알레르기내과 230-1360	곽진영	폐암 및 폐종양, 폐결절,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호흡기감염질환	월, 수, 목	월, 수
	이중철	중환자의학,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화, 금	월, 화, 금
	최경화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알레르기질환, 간질성 폐질환(폐섬유화증), 호흡기감염질환	월, 화, 목	화, 목
	이민희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절, 만성기침	화, 수, 금	화
	양현주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알레르기질환	월, 목	수, 목
	김병관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절, 만성기침	수, 금	수, 금
감염내과 230-1383	장미옥	감염질환, 면역저하자감염, 바이러스감염, 여행자의학	-	-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마취통증의학과 230-1580	권영은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목	목
	김유일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수, 금	수, 금
	이지혜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화	화
	오지윤	부인마취, 정형외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금	월~금
	허현주	부위마취, 산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금	월~금
	정종달	노인마취, 정맥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금	월~금
방사선종양학과 230-1520	이희관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식도, 간, 위, 대장, 직장), 비뇨기암(방광, 전립선)	월, 화, 수, 금	화, 목
	박혜리	유방암, 자궁암, 임파종	월, 화, 금	수, 목
병리과 230-8190	이광민	조직병리, 세포병리, 분자병리	월~금	월~금
	주명진	조직병리, 세포병리, 면역병리	월~금	월~금
	유설봉	폐병리	월~금	월~금
	안지현	소화기병리, 혈액종양병리	월~금	월~금
비뇨의학과 230-1440	천민우	남성비뇨, 요로결석,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화, 수, 금	화, 수
	이강석	여성비뇨, 소아비뇨,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월, 목	월, 목, 금
소아청소년과 230-1390	이오경	신생아, 미숙아질환, 신장질환	-	-
	박강서	소아호흡기, 알레르기질환, 아토피, 알레르기검사	월, 화, 금	화, 목
	장영택	소아신경질환, 간질, 발달장애, 감염	월, 화, 수, 금	화, 금
	박신애	소아심장질환(심장초음파), 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질환	월, 목, 금	수, 목
	김미경	소아위장관, 간질환, 변비, 비만, 영양, 혈액질환	수, 목	월, 수, 목, 금
	호요한	고위험신생아, 미숙아질환, 선천성 대사장애	수	월
	박상호	신생아, 신장, 내분비질환	화, 수, 금	월, 화, 수, 금
	최중림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김경녕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성형외과 230-1560	김주헌	안면거상, 안면외상, 눈·코성형, 보톡스, 필러	월~금	월~금
신경과 230-1570	하연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혈관성치매, 두통	월, 목, 금	월, 화
	신현준	어지럼증, 다발성경화증, 신경면역질환	월, 화, 수	목, 금
	정병민	두통, 치매, 파킨슨병, 말초신경병	화, 수, 목, 금	월, 수, 금
신경외과 230-1420	신동규	척추, 신경통증, 외상	월, 수	월
	공태식	뇌혈관질환, 뇌졸중, 혈관 내 수술	월, 목	목
	최은석	목, 허리디스크 협착증 수술 및 비수술 치료, 척추 외상	금	수, 금
	김효준	뇌졸중, 뇌종양, 퇴행성 질환, 간질, 외상	수	월, 수
	신우람	척추, 신경통증, 외상, 뇌졸중	화, 목	화, 목
	박 민	뇌혈관질환, 뇌졸중, 외상, 혈관 내 수술	화, 금	화, 금
안 과 230-1450	고명규	녹내장, 망막, 각막, 사시	월, 목, 금	월, 화
	정새롬	망막, 백내장, 유리체, 포도막	화, 수, 목	목
	김근영	성형안과, 백내장, 녹내장	월, 화	수, 금
여성의학센터 230-1500	김경진	부인과종양,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월, 수	월, 수, 금
	김경아	산과(고위험임신), 내시경수술, 부인 내분비질환, 일반부인과질환	월, 목	월, 목
	홍상기	내시경수술, 산과(고위험임신), 일반부인과질환	화, 금	월, 화, 금
	백수경	내시경수술, 산과(고위험임신), 일반부인과질환	화, 목	화, 목
	문정범	불임, 내시경수술, 부인과질환	수, 금	수, 금
	정태원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월, 화, 목, 금	-
영상의학과 230-8380	유은애	뇌신경, 두경부, 척추	월~금	월~금
	김수정	뇌신경, 두경부, 척추	월~금	월~금
	이미숙	흉부	월~금	월~금
	송인섭	근골격, 척추	월~금	월~금
	김윤환	인터벤션	월, 화, 수, 목	월, 화, 수
	강동민	복부, 비뇨생식기	월~금	월~금
	김상헌	복부, 비뇨생식기	월~금	월~금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외과 일반외과 230-1400	박찬균	외과응급	-	-
	김은영	외과응급	-	-
	이호영	탈장, 급성복증, 복강경	목	목, 금
간담췌외과 230-1400	김우영	간, 담도, 췌장, 탈장, 복강경	화, 금	화, 금
	이유니	간, 담도, 췌장, 탈장, 복강경, 화상, 외상, 일반외과	월, 수	화, 수
대장항문외과 230-1400	김갑태	대장암 및 대장항문질환, 복강경, 탈장	월, 목	월, 목
	정진용	대장암, 항문질환, 탈장,소아외과, 일반외과	화, 수, 금	화
상부위장관외과 230-1400	이종명	위암 및 상부위장관암, 복강경, 비만수술	월, 목	월, 목
	양유성	상부위장관(위, 소장), 일반외과, 비만수술, 화상	수	월, 수, 금
유방갑상선외과 230-1400	김철승	유방·갑상선	화, 금	화
	박영삼	유방·갑상선, 두경부	월, 수	월, 수
	김예정	유방·갑상선, 일반외과	목, 금	월, 목
혈관이식외과 230-1400	김철승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혈관중재시술, 혈관이식	화, 금	화
	한규담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혈관중재시술, 혈관이식, 유방·갑상선	화, 수, 금	금
	김미진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혈관중재시술, 혈관이식, 유방·갑상선	월, 목	월, 화
소아외과 230-1400	김예정	소아외과	목, 금	월, 목
국제진료소 230-1400	이대영	외국인진료, 일반외과, 비만수술, 완화의료(호스피스)	화	목
내과 응급의학과 230-8280	조정열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이동익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김수익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전우영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김호권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전용규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이상경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이찬희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노윤채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박홍인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백종원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오근호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이비인후과 230-1480	천경두	귀(중이염, 난청)	월, 목	월, 목
	이시영	코(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월, 화, 금	화
	한주희	두경부, 이비인후과 일반질환	수, 목	월, 수, 금
재활의학과 230-8280	윤용순	뇌신경재활, 요통 및 운동치료, 하지교정, 소아재활, 부정렬증후군, 족부클리닉	화, 금	월, 목
	윤석붕	중추신경계재활(뇌 및 척수손상), 근전도, 노인재활, 연하재활	월, 수, 금	월, 화, 수
	이광재	뇌졸중재활, 심장재활, 신경근골격계통증, 오십견, 근골격초음파클리닉, 보톡스클리닉	화, 수, 목, 금	월, 화
	최귤리	노인재활, 연하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월, 화, 목	수, 목, 금
	유기삐	뇌신경재활, 소아재활, 족부클리닉, 통증재활, 호흡/연하재활, 근전도	월, 수, 금	화, 수, 금
	김은실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월, 목	월, 수, 목, 금
	이정후	중추신경계재활, 신경근골격계통증, 의지/보조기	화, 수, 목	화, 목, 금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정신건강의학과 230-1550	최말례	여성정신건강클리닉, 정신치료, 기분장애, 황병, 불안장애(공황장애), 신체형장애, 불면증, 조현병(정신분열증)	월, 화, 목	화, 수
	나의현	중독 정신장애, 청소년정신장애,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사회공포증), 기분장애(우울), 조현병(조기정신증), 불면증	화, 목, 금	월, 화, 목
	김철응	조현병, 조기 정신병, 수면장애, 기립성뇌장애, 기분장애	월, 수, 목	월, 화, 수
	김 용	기분장애, 불안장애, 조현병, 치매, 수면장애	월, 화, 수, 금	월, 화, 목, 금
정형외과 230-1430	정의섭	고관절(인공관절), 골반, 외상	월, 수	월, 수
	신충식	견·주관절,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월, 목	월, 목
	김태호	고관절(인공관절), 골반, 외상	수, 금	수, 금
	김종길	외상, 족부, 족관절	화, 금	화, 금
	김경태	손목질환, 손목관절내시경, 외상, 스포츠손상	월, 수	월, 수
	송경진	척추	화, 목	-
진단검사의학과 230-8751	김영숙	임상미생물검사, 면역혈청검사, 분자세포유전학검사, 임상경검학검사	월~금	월~금
	최인선	진단혈액검사, 수혈의학검사, 임상화학/요경검, 조직적합성검사, 현장검사	월~금	월~금
치 과 230-1540	송윤관	보철(틀니,브릿지,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신경치료,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최현미	보철(틀니,브릿지,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신경치료,소아치료), 임플란트	화, 수, 목, 금	화, 수, 목, 금
	안주남	보철(틀니,브릿지,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신경치료,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피부과 230-1490	이진호	감염성 피부질환, 습진질환(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피부종양	월, 화, 금	금
	임지홍	일반 피부질환, 두드러기, 건선, 피부 레이저	월, 수	월, 수
핵의학과 230-8780	김민우	근골격핵의학, 종양핵의학, 심장핵의학, 신경계핵의학, 소화기핵의학, 일반핵의학, 방사선면역검사	월~금	월~금
	문은하	근골격핵의학, 종양핵의학, 심장핵의학, 신경계핵의학, 소화기핵의학, 일반핵의학, 방사선면역검사	월~금	월~금
심장혈관외과 230-1410	최종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 대동맥, 선천성 심장병	화, 금	-
	박성식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 대동맥, 선천성 심장병	월, 목	-
흉부외과 230-1400	서연호	일반 폐질환, 다한증, 기흉	월, 수, 금	월

예수병원
Presbyterian Medical Center

대표전화 1899-1843 / 230-8114 / 080-077-7575
응급센터 230-8282 진료협력센터 230-8989

예수병원
Presbyterian Medical Center

54987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대표전화 1899-1843 | 230-8114 | 080-077-7575
응급센터 063-230-8282
진료협력센터 063-230-8989
www.jesushospital.com